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강 소설가

1998-2004년, 4단계로 허용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 그때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두려워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1965년)를 했었지만, 36년간 지배당한 억분(抑分)함과 일본 정부의 일관된 뻔뻔한 작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가실 수가 없었다. 스포츠 '한일전'이 벌어지면 너무나도 애국적이지만, '일제'를 사용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는 이율배반 상태에서도, 자존심 상 일본 영화(특히 애니메이션)·비디오·만화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두려움에 떨었던 애국가 안 뜨고 안 팔린 대가로 다양한 개방 압력을 받고 있었고, 세계화를 부르짖는 터수에 세계적인 일본 대중문화를 계속 막을 수도 없었으

한국 소설에도 사랑을

며, '한류'를 팔기 위해서는 '일류'도 살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해적판이 난무했다. 차라리 정상 유통시키고 세금을 뜯어내기로 한 정부의 선택은 당연한 바였지만, 불법으로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합법이 되면 얼마나 잘 팔릴지 겁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한국 문화시장을 휘어잡던 일본 문화가 있었다. 일제가 몰락한 뒤에도 일본 소설은 거리낌 없이 살아남았다. 야스나리야 겐자부로의 노벨문학상 수상(1968, 1994년)은 일본 소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데 일조했을 테다. 누가 감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두 번이나 배출한 나라의 소설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루키의 등장은 치명적(?)이었다. '상실의 시대'는 수백만 권이 팔렸다. 출판사들은 다투어 일본 작가의 소설을 출판했다. 또 다른 하루키 대박을 꿈꾸면서, 일본 신인문학상에 불과한 '아쿠타가와상'은 세계적인 문학상으로 오해받았고, 그 상을 받은 일본 작가 치고 한국에서 안 뜨고 안 팔린 이가 없었다. 대중문화에서도 그런 장악이 당연해 보였다. '대중문화 식민지'가 될까 봐 떨었던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가 완전 개방된 지 15년째, 걱정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대중문화적으로 다시 식민지가 되었다'고 통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럭저럭 방어해 낸 듯하다. 가장 우려했던, 호환·마마보다 무서워했던 '비디오'는 사라져 버렸고, 나머지는 '불매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나라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일본 것이라면, '국뽕'이랄까 신도불이 정서랄까, 그게 무엇이든 무슨 내용이든 그냥 무조건 싫은 분도 있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데는 나름 까담이 있었을 테다. 일본 것은 오래전부터 자유분방한 이야기를 누구나 마음껏 쓰고 읽고 출판했던 전통 때문인지 몰라도 자질구래한 얘기에 유난하다. 주제와 의미가 중요시하는 한국 대중에게는 한심하고 사소했을 테다. 한국인 역시 개인주의로 치닫고는 있지만 대이나 사상에 기반하지 않은 일본의 극도한 개인주의는 낯설기만 했을 테다. 또 일본 것은 더는 상상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는 듯 장면의 잔혹성이나 열기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식 열기와 잔혹이 매우 부담스러운 한국 대중이 많았을 테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안다고 해도 참 맥락 없는 전개로 느껴질 때가 흔하다.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리는 장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지만, 그 눈물 나오게 하는 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대중은 일본 것이 도무지 정서에 맞지 않아 감동하기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어쩌면 한국 정서와 조금은 더 가까운 미국 대중문화를 향유하기에 비해서 일본 것은 애초에 관심 밖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문화 식민지'라고 통분하는 분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참 알 수가 없다. '대중'이란 명색이 불지 않아서일까, 일본 소설만큼은 꾸준히 많이 팔려 왔다. 한국 소설을 압도했다. 웬만한 일본 소설보다 훌륭하고 재미있는 데다 의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한국 소설이 수두룩한데 하나같이 안 읽힌다. 한국 대중은 한국 소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국뽕'도 신도불이 정서도 나름의 변별도 발휘해 주지 않았다. 최소한의 소비에도 인색했다. 구차하지만 한국 작가들과 한국 소설에도 최소한의 사랑을 나눠 달라고 호소드린다.

社說

상위권 학생 '내신 몰아주기' 어찌 이럴 수가

광주의 한 고교에서 드러난 '내신 몰아주기' 행태는 학교가 교육 공간이 아니라 북마전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광주 시교육청이 엇그제 발표한 학교별인 고교학원 산하 고려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오답을 정답 처리하거나 정답을 오답으로 채점하는 등 서술형 문제 정수를 조작한 것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수천 건에 달했다. 이 학교는 3학년 기말고사 수확시험을 앞두고 수학 동아리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사 등은 전체 학생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점수를 몰아줬다. 서술형 문항에 답을 적어 내지 못해 '빈칸'으로 제출한 상위권 학생에게 점수(5점)를 줬고, 같은 답을 적었지만 상위권 학생에겐 7점, 일반 학생은 3점을 주기도 했다. 일반 학생은 상위권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왜곡된 판단으로 8개 선택과목(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중 학생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과학Ⅰ'·'물리학Ⅰ'·'물리학Ⅱ'만을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했다. 교직원 대거 이 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례가 드러난 것도 충격적이다. 교장·교감이 중징계 대상이 됐고 교사 48명이 징계나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지난해 대동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이번까지 고교 내신·시험 관련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광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하고 대학에서 성적표를 불신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결국 선량한 다수 학생이 입시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반복되는 내신 부정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광주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고교 성적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독립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74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반성은커녕 이전 경제침략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다. 하필이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올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등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규탄과 함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극일(克日)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복절인 15일에는 광주 백범기념관과 푸른길공원, 목포 근대역사관 등지에서 극일을 다짐하는 각종 행사가 열렸다. 또한 진정한 극일은 경제 독립이라는 공강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며 진정한 광복은 책임 있는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운명의 주인으로 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일본 경제 보복 사태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강'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새 나라 청사진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원 코리아'를 제시하면서 3대 국가 운영 목표 가운데 가장 먼저 '책임 있는 경제대국'을 내세웠다. 이 또한 진정한 광복이 경제에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역시 39번이나 나온 '경제'였으니, 한반도 평화나 과거사 문제가 초점이 맞춰졌던 이전의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 모두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극일은 경제 독립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노 재팬' (No Japan) 운동



정세완 원불교 광주농성교당 교무

듯하다. 요즘 일본의 경제 보복을 보면서 일본 국민들은 아베 극우 정권의 뺨에게 물린 형국인 듯하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여 한 세기 동안 강도 짓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극우들은 일제 36년간 정당한 방법으로 통치를 했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은혜도 모르고 항상 거짓말로 따지고 달려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토착 왜구들도 동조하고 있다.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고 서점에서는 한국 혐한 서적들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으며 정치가 국민을 교화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조주의 아베 정권은 60년간 일당 독재를 해오면서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세력들을 죽였고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군국주의 망령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형국이다.

다행히 '노 재팬' (No Japan) 운동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 세대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해서 모든 일본산 제

품들을 SNS로 서로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평화적이고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니혼게이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인 20대들은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70%나 된다고 한다. 60대 이후의 49%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지만 어떻게 하나며 그 상황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알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모른다고만 한다. 이 모든 현실이 정직한 역사 교육을 외면한 극우 아베 정권의 산물이며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교조주의 나라 아베 정권의 현실이다. 상처가 깊으면 확실하게 짜주어야 상처가 낫는다. 어설픈게 짜면 뒤틀린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확실하게 대응해서 21세기 국민운동인 '노 재팬'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찾아와야 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서대문형 무소에서 무릎을 꿇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를 한적이 있다. 하토야마 총리에게 한 기자가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나?"라고 물으니 하토야마 전 총리의 답변은

"한국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할 때까지 돌아서있는 서로 윈윈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역사는 정의의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한국은 가능성이 늘어나는 국가이고 일본은 가능성이 줄어드는 나라이다. 한국의 미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일본의 과거의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일본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편이다. 또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숨은 공간이 있다. 과거에는 분단 국가가 비극의 상징이었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의 드림 랜드가 될 것이고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노 재팬' 운동의 '뺨'은 무엇일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다. 일본은 강하고 한국은 아직 약하다는 패배주의 마음이다. 아베 극우 정권이라는 군국주의 뺨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나를 버리고 내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를 버리고 전체를 보아야 한다. 정의로운 감정과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21세기의 국민 운동인 '노 재팬' 운동에 즐겁게 참여하자.

기 고

광천동 '시민 아파트'를 지켜 주세요!

이었다. 광천동 '시민 아파트'는 1970년 이후 대한민국 광주의 가난한 국민들이 화장실과 세탁실이 없는 10평짜리 쪽방에서 너댓 명의 자식들을 어렵사리 키우며 살을 영위했던 현장이다. 그곳은 1970-1980년대의 가난한 국민들의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현실이 생생하게 배어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겠는가! 21세기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공간을 본 적이 있을까! 광주시 광천동 '시민 아파트'는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 근대 생활 문화의 박물관이자 기억 저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막바지 발악을 하던 1978년 8월, 광천동 천주교 교리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최초의 노동자 학인 들불야학의 창립식이 열렸다. 대학생들이 광천동 광주공단의 배움에 목마른 노동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설립된 야학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역인 박기순, 5월 항쟁의 대변인 윤상원,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시민 아파트 지역운동가

이다. 5월 항쟁 기획실장 김영철, 투사 회보 필경사 박용준 등이 모두 이곳 들불야학에서 모였다. 들불야학은 학생 수가 늘어나자 시민 아파트를 임대하여 교실로 사용하였다. 윤상원 열사는 동생과 함께 아예 시민 아파트 방을 얻어 자취를 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검열에 항의하여 신문 제작은 중지되고 TV뉴스에서는 시위대가 던진 돌을 맞고 썰매처럼 굴러가는 모습만 방영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1시 30분 광천동에서 금남로에 온집한 시민들을 향해 공수부대의 실탄 총격이 시작되어 6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날 광천동 성당 교리실과 시민 아파트의 방을 교실로 사용하던 들불야학의 대학생 강학과 노동자 학생들이 모여 수동식 등사기로 '투사 회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도청 투쟁 위원회 대변인 윤상원이 보낸 원고를 YWCA 신협 직원으로 근무했던 고아 출신 박용준이 등사 원지에 철판로 쓰면 나뉘면, 윤순호 등 노동자 학생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등사기를 돌렸다. 그러다 5월 25일 들불야학 팀들은 시내 전일빌

딩 뒤편의 YWCA로 옮겨 투사 회보를 제작하다 27일 새벽 M16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의 총격에 의해 박용준이 사망하고 나머지 야학 학생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광천동 시민 아파트는 5·18 민주화운동 투쟁 상황을 소식지 형태로 제작한 역사적 공간이다. 2019년 현재, 광주는 주택가 절반쯤이 아파트 건설로 공사 중이다. 시민 아파트가 서있는 광천동 주택가도 53개 동, 57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시민 아파트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시민 아파트에 서려있는 들불야학의 역사와 박기순 윤상원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도 모두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역 개발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김영철 열사의 활동과 화장실도 없이 어렵사리 살아왔던 수많은 민초들의 고단한 삶에 담긴 이야기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민 아파트는 근대 생활 문화의 기억 저장소이기도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또 다른 현장이다.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민 아파트'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전용호 광주시 상임 인권운동부즈맨·작가

광주시 광천동에 가면 3층짜리 우중충하고 어두침침한 연립 아파트가 세 동 있다. 그 건물을 광천동 '시민 아파트'라고 부른다. '시민 아파트'는 소위 도시민들의 안락한 생활 터전의 개념인 '아파트'가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피난민과 부랑민을 위하여 1970년에 광주시에 서 지은 180여 가구의 3층짜리 연립 주택이다. 17구는 10평쯤 되는 공간에 두 개의 방과 부엌을 겸한 통로가 있을 뿐, 화장실과 세탁실이 없다. 건물 입구에 화장실과 세탁장을 공동으로 갖추어서 세면과 빨래, 혹은 쌀을 씻는 것도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어서 들어가면 역한 냄새와 메탄가스로 눈이 따가웠다. 광주시에서 지었지만 이름만 아파트지 다가구 연립 판자촌

無等鼓	
<p>전국적으로 이름난 계곡이 많지만 광양 백운산 계곡만큼 크고 아름다운 곳은 드물다. 전남도가 '시원하게 빠져 보는 남도 여행'을 테마로 백운산 계곡을 7월 관광지로 추천한 것만 봐도 이곳이 피서지로서 얼마나 매력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p> <p>백운산 계곡은 성불·동곡·어치·금천 등 4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여km에 걸쳐 남과 동으로 흘러내리며 기암괴석의 풍광도 빼어나다. 성불 계곡은 울창한 숲 아래 흘러져 있는 평평한 바위들이 이</p>	<p>해 최근 5년간 물놀이하다 빠져 숨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에 지난해 여름 두 명의 익사자가 발생했을 당시 르포 기사를 통해 '사고 다음 날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6일 자에 '안전요원·인명 구조장비 턱없이 부족, 안전 없는 백운산 계곡'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를 게재했다.</p> <p>하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광양시의 한 관계자는 본사 취재 기자에게 "조치한 부분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만 지적했다"며 항의성 전화를 해 오기도 했다. 기사가 오보였으면 좋았으려만 보도 후 사를 만난 8월 9일 고교생이 또 동곡 계곡에서 산 뒤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 섬진강과 만나는 절경을 연출한다.</p> <p>계다가 계곡 주변에는 성불사와 도선국사 테마 마을이 있으며 육룡사지 동백나물숲과 천문대 그리고 오토캠핑장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듯 천혜의 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피서지가 지역에 있음에도 마음껏 자랑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올해에 또 한 명이 숨진 것을 비롯</p>
죽음의 계곡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